

'90 춘계 석유정책세미나 종합토론(全文)



□ 토론자

-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張錫靖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池桂植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 盧三錫 (한국경제신문 기자)
- 申鉉滿 (한겨레신문 기자)
- 黃斗烈 (油公 이사)
- 權五倫 (湖南精油 전무)

- 全在浩 (京仁에너지 이사)

- 鄭善基 (雙龍精油 전무)
- 權憲相 (極東精油 전무)

□ 사 회

- 黃鎬升 (석유협회 부회장)

□ 정 리

- 金乾洽 (석유협회 홍보실장)

이 자료는 지난 5월 11일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와이키키수안보관광호텔에서 열린 '90춘계 석유정책세미나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66

정부나 기업이 어떤 계획을 발표할때 그속에는 항상 비전이 들어 있으며, 또 그 비전의 상당 부분은 꿈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국민이나 고객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黃鎬升 :李기자님은 과거 산업연구원에서 세계경제와 에너지를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다른 기자들 보다는 폭이 넓은 듯합니다.

그래서 정유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또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감히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나 정유업계, 연구원에게 부탁한 말씀은 저희들도 새겨들어 가지고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는데, 평소에 느끼시고 생각했던 것도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盧三錫 기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盧三錫 :작년에도 제가李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또다시李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유전 개발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감은 누가 심어 주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전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도 하나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浦項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같은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기대감을 심어 준 책임은 누구든 하나 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아까 인색한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지만, 이것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금 여러가지 각도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온 후에 저하고 말씀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壽晟 :저더러 답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石油가 없는 나라에서 石油가 있다. 또는 그 유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5년, 6년 뒤에는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石油와 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희망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한다/ 지금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그 의도를 알아 가지고서 다시 또 지레 짐작을 하여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부나 기업이건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발표를 한다 할때 그 발표 속에는 항상 비전이라는 것이 들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의 상당부분은 그것이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을 순수하게 발표하는 주체가 기업이건 정부가 되건 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반드시 石油 탐사개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A회사의 매출액을 10배로 늘리겠다 했을 때 그러한 비전을 고객에게 심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石油에 대한 탐사실적이나 그 다음에 또 石油의 탐사 실적이 없고, 또 그런 여건에서 조금이

라도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늘었던 것도 사실일텐데 그 때문에 정부의 발표나 石油 탐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계획이나 발표를 완전히 불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석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의 폭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상당히 감안해서 들어야 될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도 얘기를 드렸습시다마는, 연구개발 투자와 석유탐사 개발 투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투입해 가지고 한 10%. 더구나 신기술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해 가지고서, 제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5% 정도 건지면 잘 건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투자의 위험부담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R&D 투자나 석유탐사 개발투자는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상당히 R&D 투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실패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탐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그만큼 석유 탐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경험이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는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三錫: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李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쭙 본 것입니다.李紀勳 기자도 얘기를 하고, 언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문제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유전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이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기대를 걸고, 예를 들어서 6광구 시추를 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 봅니다. 또 그것이 임박할 단계가 되면 유독 증권시장쪽에서 전화가 오고 결과가 나왔느냐, 또 저희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당국자 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듣기로 한 그 뉴스가 이미 바깥쪽에서 들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발표를 엠바고를 붙였느냐 아니면 몇시에 발표를 할 것이냐 하는 아주

과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저희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외 유전개발이든 국내유전개발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년 세미나에서도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했고, 또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국내 정유업체들은 유전개발을 등한시 했느냐 하고 작년에 못 마땅한 표정을 지었습시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유전개발, 해외유전개발 진출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3개국 1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油公이야 가장 큰 회사니까 많이 나가있고, 독보적인 존재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湖南精油를 포함한 렉기금성쪽이 대단히 활기를 띄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를 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렉기금성과 湖南精油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대해서 거부감을 전혀 안 가집니다. 앞으로 雙龍精油도 저쪽 마두리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단계에 있지만, 저희 기자로서 보면 그것처럼 신선한 뉴스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유전개발에 뛰어 들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는 저희들로서는 기사 PR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유업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수급문제에 대해서 여쭙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며칠전 동국제강 문제가 상공부에서 동자부로 넘어왔는데, 동자부가 알아도 얘기를 못할 상황이었지만, 3개 회사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거절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신규 수요니까, 저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회사를 찾아가서 모두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도 제가 직접 업체에서 들은 것보다는 상공부쪽에서 공식적인 견해가 나왔다는 것은 수급문제에 뭔가 구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입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비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익도 없는데 기동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산업을 뒷받침해야 되고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야 되는 차원에서 볼때는 3개회사 5개회사 다 가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은 어디엔가 우리가 구멍이 있고, 정유업체 자체가 사망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뭐 경질원유들여다가 우선 경질유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중질유 나오는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부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아까 李紀勳 기자도 말했지만, 좀 시각을 크게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언론에서 바라는 입장입니다.

黃斗烈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특히 중앙경제신문의 추기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주셨고, 여러가지 현안이라든가 제기된 문제들을 다 탁상위애다 내놔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문제는 다 도출해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고 해결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지금 정부 부문에 언급도 해주셨고, 또 우리 업체를 많이 질책도 해주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깊이 이해도 해주셨고, 이런 언론 자체의 딜레마, 고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서로 할 얘기들도 많을 것이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1시간 정도로 토론을 해 가지고 끝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제기해주신 문제 하나 하나가 전부 다 3자가 다 할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있으니 이것을 두고 두고 하나의 아이টে를 가지고 하루 저녁씩 보내야 될 것 같고, 천일야화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려면 이런 대화가 포괄적으로 만들어 질 것이 아니고, 멘투멘도 좋고 좀더 잦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업체에서도 여러가지 일반 공정에 좀 좋지 않은 인식 같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체 업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 같은 것, 이것은 언론이 맨날 사실적인 보도를 하느냐 이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정리해서 자주 보도자료도 드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자료들이 연거푸 나오고 또 중복돼 나가면, 또 그것이 그게 아니냐 또 더구나

같은 소리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냐 무시해 버리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 주시고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盧三錫 : 탈황시설을 했을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중질유 분해 및 탈황이 된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왜 다른 업체는 안 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동자부에 처음 가서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그럴 때까지 제가 업계에서 듣고 하고 그런 느낌으로 볼때는 필요도 없는 시설을 참 취약한 極東精油가 먼저 추진한다는 것에 상당히 냉담한 반응들을 보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데 점점 정부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방침을 대충 세워 나가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표현들을 나머지 기업에서 조금씩 나오시더라고요. 그후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때 나머지 4개社 분들은 구체적인 대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개 업체 넣으니, 뭐 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좀 나올 것 같다 하니까 몰려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빈칸이 다 메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보다 전문가 이시니까 기업쪽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 텐데 왜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하실 생각을 전혀 안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감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업계에는 여쭙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동자부에 계신 張立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죠.

업체들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張錫靖 : 제가 오늘 답변드리기 전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처음에 李會晟 원장께서 전반적인 석유수급이라든지 세계동향을 보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석유업계에서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주장과,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또 지금 많은 기자들도 계신데 그 업체의 주장이 정부가 생각한 것과

현재 정부로서는 석유수요의 경질화추세로 보아 크래킹시설이나 탈황시설같은 시설고도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투자지원에 대해서는 금융·세계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격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저희 대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제3자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의견을 이 기회를 통해 듣고 저희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업계도 업계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항상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윤같은 문제는 업계에서는 더 나오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고, 또 규제를 하는 저희쪽으로 보면 그것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많은 것은 토의와 의견속에서 소위 요새는 컨센서스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어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있으면 제 의견을 한번, 의견이라기 보다는 생각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 또 마지막 李紀勳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느꼈던 많은 것을 설명해주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해주셨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를 李紀勳 기자께서 그동안 출입하면서 정부를 보는 눈, 업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 고 이런 것은 지금 油公의 황이사가 말씀한 대로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일부에 있어서는 홍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盧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크래킹 시설이라든가 탈황시설을 보면 실제 지금 현재의 油價 구조로 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이

油價가 어떠한에 따라서 모든 경제성이라는 것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크래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고유황유와 저유황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격차가 줄면 경제성이 주는데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그러면 크래킹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보면 세계적인 유통시장으로 보아 저유황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패턴이라면 크래킹시설을 안하고 수급을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세계의 석유시장을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저유황유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저유황유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급도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자금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지금의 국제油價의 차이로 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세계같은 면에서도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울러서 그러면 신설, 아까 이윤율의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정유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탈황시설도 해야되고 크래킹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합치면 1조6천억원만큼 자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정유사는 자금 동원능력이 없다. 기업에 유보되는 것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봐가지고 지금 허용 이익률 10%가 너무 적지 않느냐, 10%를 20%로 올려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이윤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20%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20%가 왜 적정하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보다는 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논리이고 그렇게 돼야 그런 재투자 그런 것에 시설 능력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가격을 정부가 관리를 해가지고 적정 이윤을 만들 경우에 기업이라는 것이 확장을 하고 늘어날 적에 항상 그 늘어나는 돈은 지금하고 있는데서 벌어들여 가지고 다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냐는 정의상으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이렇게 규제를 안할 경우에 경영이 상당히 참신하고 아주 좋은 경영을 해서 다른데 보다는 이윤율이 높아서 다른 공장도 짓고 확장도 하고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은 경영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일부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항상 벌어서만 지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백억짜리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백억짜리 증설을 하게 되는데 백억을 백억짜리 공장에서 백억을 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정의상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적에 10%의 마진율이 높고 낮느냐를 보면 지금 세후 10%라는 것은 세전 약 16.5% 수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갔다가 돈을 넣더라도 이자가 생기면 소득세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세후 10%로 그러지만, 세전에는 16.5%란 말입니다. 그러면 16.5%의 이윤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법인세를 내는 것이니까, 내고 난 뒤에 10%가 되는데 그러면 정유사가 16.5%의 이윤이 적어서 세후 이윤율을 10%에서 20%로 한다고 그러면 세전 이익율은 33% 수준이 될 것인데, 지금 자기자본율의 30%, 40%를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데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충분히, 다른 논리입니다마는 합쳐 가지고 정부가 33%의 이윤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론적으로나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통상식에 33%의 이윤율이 합당하나,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규제하고 있고 가격을 규제하는 한은 적정 이윤율에 대한 것이 더 논의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정유사에 대한 가격이 규제가 안 되고 자율화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윤율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정유산업을 공기업화와 마찬가지로

로 관리를 해가고있는 이상 33%의 이윤율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할때도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증설이나 신설되는 것에 대한 자금, 그쪽에 지원은 저희가 함으로써 원활한 수급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윤율 자체는 그렇게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紀勳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유업계를 보는 것이 국민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산업」 또 「돈을 잘 버는 업종」, 또 돈이 풍부하데 이렇게 생각해서, 솔직히 저희가 저희 자금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세제지원 같은 것을 다른 부처, 국회 같은데서 내보면, 정유업계 돈 많은데 거기다가 또 용자를 할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면 아, 급한데도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것도 어려운데, 돈 많은데 무슨 자금을 지원하느냐, 하여튼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각이 우리 李紀勳기자께서 말씀한대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비해서는 정유산업의 이윤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3년간의 호황기였을 때에 이윤율은 상당히 낮았거든요. 불황기로 들어가 가지고 기업의 이윤율이 낮아 질때는 아마 정유업계에 16%의 이윤을 준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다른 기업이 이렇게 불황기에 전부 다 적자가 나는데 장유산업은 무엇때문에 정부에서 16.5%씩 매년 해주는 것이 무엇이나 그때는 그것이 뉴스가 되기 때문에 정유업계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이 되고, 경기가 좋을때는 관심도 없고 속으로 다른 것을 했으면 돈을 더 벌텐데 이것이 정부에 묶여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러기 때문에 속은 알면서 그것은 안 알려지고 경기 나쁠때는 알려져 가지고 좋은 인상 안 가고 그래서 PR이 逆PR이 되는 것이 정유업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정유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 될 때 외국 기업들과 합작하여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국민이나 관리나 합작을 하는 기업 자신도 그것을 좋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 가는데 감시를 하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어 왔던 것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정유업계를 보는

눈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있는 것보다도 나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을 홍보를 해가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이렇게 과대 포장할 것은 아니지만 실상을 제대로 업계가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가 홍보쪽에 역점을 두고 아까盧기자도 말씀한 대로 정유업계가 해외로 나가서 유전개발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더라, 정유업계가 국내에서 이윤내고 돈을 버는 것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이런 기업같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신선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기회에 하여튼 정유업계가 회사별로 어떤 PR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자체의 PR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매체라든지 이런데다가 기름은 어떻게 생성 되어가지고 어떻게 정제되는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스폰서 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야! 이 기름 만들려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정유회사를 우리 손으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우리나라가 여러군데 나가있지 않느냐, 이런 PR은 교육적이면서도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업계에서 정유업계 또 석유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간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틀이 된다는 이런 점에서 그런PR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은 정유업계를 국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얘기를 하는 김에 李紀勳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정부가 하고있는 시책이, 저 자신도 정유업계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것이 많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들어와서 정제돼어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정부가 거미줄 같이 이것 저것 허가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가 가까와 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업종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는데가 거의 없을 만큼 우리업계 자신도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있고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대를 보면서 결국은 정유업계가 뉴엔트리

를 막고 정유사 자체를 증설하는 것도 정부가 적정규모로 하라고 해서 규모도 줄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돌이켜 보면 자본의 배분에 있어서는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볼때는 '70년대하고 '80년대초에 정유산업이 장차산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그냥 자율화가 되어 과잉투자 되어서 자본의 효율성을 낮추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하지 않느냐 적정가동률을 이끌어 왔던 것이 정부가 규제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뉴엔트리에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가 회의를 할적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기억인데 우리 기자단에 계신 분이 누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만약에 새로 정유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규로 내주게 되면 아, 그러니까 정유업계에 계신 분이 『새로하게되면 우리하고 경쟁도 안됩니다.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유사가 10만배럴을 지으려면 예를들어 3천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하면 그 3배는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 엔트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하는것이 이쪽의 대답이었는데 기자단쪽에서 아니 그렇게 3배씩 들어가면 겁낼 것이 뭐 있느냐 고양이 앞에 쥐라고 말씀하셨는데 3배쯤 들어갈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겁이 나서 신규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느냐, 내버려 두면 더 잘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상당히 대칭되는 얘기인데 제가 '80년대 자본의 효율성을 말씀 드리는 것은 정유업이라는 것을 이윤율 외에 다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유업의 자체가 매출액에 대한 이윤율이 적다. 그것은 매출액의 이윤율이 적지만,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재벌그룹들이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금 플로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 것이고 정유산업이라는 것이 석유화학에 원료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기간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기업 그룹간은 정유산업을 하고싶어 하는 그런 업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율을 떠나서 '80년대에 만약 자율화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과잉 시설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도 자율화 한다고 그러면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윤율만 따져가지고하는 그런 패턴의 산업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터워도 누가 잘

66

주유소의 풀 사인제도와 거리제한 철폐등의 문제만 봐도 하나하나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그 중에 하나만을 딱 떼어내서 자율화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들어 올지 모르겠죠. 그런 것을 생각할때는 자율화로 나가는 방법을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런것도 연결이 되는데, 자율화를 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풀사인제도, 거리제한제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풀사인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거리제한 뭐 하느냐 하나 하나씩 풀어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거미줄 같이 얽혀 있듯이 풀사인 제도는 주유소 거리제한이라든지 주유소 제한과 걸려있고 또 이것이 직거래냐 아니냐 하는 것도 가격자율화 하고도 걸려있고, 이것이 전부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거미줄같이 되어가지고 그런대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대로 밸런스를 맞춰 왔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자율화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저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느냐, 가격이 또 올라가면 맞춰질 것이고, 국제시세에 따라서 국내가격이 정해져야 될텐데, 지금 같은 구조하에서는 상당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고, 그것이 저희가 골치를 썩는 부분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관리는 책임없는 관리, 골치아프면 요새는 자율화다 그러고 안해 버린다. 이러는 풍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기업도 이제 상당히 업스트림, 다운 스트림으로 봐서도 복잡하고, 수지라는 그 자체가 국내 시장외에 국제시장 하고도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그림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池植植 : 저희가 여신 규제에서 지금 그것을 풀려고

상공부나 재무부쪽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곧 합의가 돼서 지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張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첨단 산업으로 지정되도록 재무부나 협회가 힘을 다하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이렇게, 아까도 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부나, 상공부, 동자부가 돈 많은 사람들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뜨근하단 말예요, 이게 그렇다고해서 주어진 나의 일인데 사실 그것은 정유업계에서도 반성을 해야된다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느냐, 제가 이번에 분해·탈황시설하고, 中東의 마두라 등에 몇번 다녀왔는데 실무요원하고 한번 부닥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유전 개발하는데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임무를 내가 수행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나 이쪽에서는 아! 돈 많은 회사들 무얼 그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이게 얼굴 뜨근하면서도 할 얘기가 사실 그렇게 실무적으로 한 것도 정유업계에서도 李紀勳기자나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 땅짚고 헤엄치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항간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국민들이 보는 견해나 또 기자들이 보는 견해도 있을거예요.

또 특히 유전개발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포항에서 기름찌뒤편가지고 조금 지나친 확장된 보도가 일부 나갔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유전개발이 꿈이겠지요. 아까 李會晟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을 지적하셨고 앞으로 업스트림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유전개발을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된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사실 유전개발이라는 것이 노하우에 가까운 1대1로 콘택트할때는 사실 언더테이블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어느 회사 보면 자료하나 보는데도 5만달러내지 10만달러를 주고서 그것을 리미트 시간을 정하고서 본단 이말이에요. 그런건데 과연 정부가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상대 국가에서 그러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의문이고 정부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봤을때 저는 정부가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한가지지만,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 기업이 뛰고 또 특히 업스트림 쪽에서는 정유업체가 참여해서 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느꼈는데 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특히 우리 유전개발에서는 6-1광구는 사실대로만 보도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6월이 되면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는건데 사실대로 보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거엔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기대를 뿌리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도 국민들이 또 거짓말 한다 하는 얘기를 저도 누누히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협조를 잘 좀 해주십시오.

盧三錫 : 최근 들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기자라는 것은 변화된 사항을 그대로 쓰게 되어있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추선 떠난다는, 그때부터 뒤져가지고 딱 떠나는날 시점에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선 저희도 경쟁체제니까 뉴스를 봤을때는 빨리 몇백미터 들어갔다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천5백미터가 목표다. 자! 3천4백에서 유추를 해보자 그래서 취재를 해가지고 3천4백에서 나온 결론가지고 쓸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류도 빚어지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데 최근들어서 동자부가 능동적으로 자료를 오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전 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는 것은 또 거기서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부탁드리는 것은 친척되는 단계를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해주시면 자! 이 단계에서는 이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고서는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자 이것은 또 담당자가 숨기는 것 아니냐 뒤에는 괜찮은 것이 있는데 스톡크 해서 청와대에 보고나 하고 공표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주시면 저희도 착오없고, 뉴스가 안되면 결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안실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張錫鎭 : 제가 하나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증권시장에서 나와서 저희가 오늘 전화로 듣고 내일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담당 과장한테 어떻게 된거냐 벌써 다른데서 증권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油開公에 전화하고 油開公도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추선 가보셨지만, 시추선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추선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시추하면서 야! 어떻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계속해서 보급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야! 괜찮은 것 같다」이게 아마 체널이 있는지, 저희도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인포털한 체널이 먼저 돼가지고 이유도 없이 괜찮다더라, 기쁨이 나왔다더라 이래가지고 우리를 과를 통해가지고 기쁨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나,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DSD 하면 유증이 어떻고 하면, 지금은 유증이 있다. 이러한 것을 요즘은 기자들한테 설명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면 유증이 있는 것만으로 되느냐, 그 유증이 매장량을 어느정도 측정이 되는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유증 하나 가지고도 기쁨있는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곧 개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추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보급하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池國장도 얘기했지만, 대륙붕 관계는 그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자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게 왕왕있어요, 작년에도 3천 얼마에서 히팅됐는데 뭐가 됐다 어쨌다 해가지고 저희도 알아 보면 그 사람들도 나온, 채취한 코어를

보면 상당히 이게 기름기가 있어 분석에 들어갔는데 펜찰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중인데 하여튼 결과가 펜찰은 것 같았는데 벌써 저쪽에는 기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면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신현만기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정유업계 이윤율이 어때요, 너무짱니까? 어떻게 됩니까?

申鉉滿: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환경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10대 기업 총수들의 회견장어가 봤어요. 전부 인상을 찌뿌리고 앉아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각 재벌 그룹 회장들이 꼭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어떤 위기가 오면 재벌이 죄벌이 된다. 지금 죄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항변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의 공익성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정유업계가 뭐 李紀勳기자가 얘기한 것도 그런건데 지금 제일 관건은 지금 에너지의 질과 효율성과 그리고 환경문제, 그것이 앞으로, 동자부도 올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지만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 상관관계도 있고 지금 EC도 그렇고, 美國도 그렇고 에너지의 효율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룰거냐가 사실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고 그러고, 더불어서 정유업계도 그렇고 자동차업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美國의 대체 에너지 법안 얘기를 이니셜을 하셔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현대자동차에 연결해 봤더니 자기네도 지금 연비문제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엔진의 출력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유업계하고 동자부에서 관심이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비를 늘리려면 당장 자동차 엔진이나 모델을 다 바꿔야 하겠지만, 덩달아서 기름의 質같은 것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왜 상공부나 동자부나 또는 정유업계에서 언급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美國은 지금 연비가 늘어나면 휘발유 소비가 줄고 그래서 업계끼리 티격태격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 문제하고 질 문제도 환경문제와 연관이 된다면 아까 李紀勳기자가

가 얘기했던 동자부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으로 에너지 多소비산업을 정책적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당장 그런 문제가 油價문제와 같이 걸리기 때문에 현대알루미늄이 와가지고 전기를 꾸어달라고,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벌써 고유가로 가면서 벌써 없어져야 했던 업종이고 또 해외로 넘어 가야할 업종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도 일종의 油價나 에너지 정책, 에너지 관리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질과 효율성과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정유업계도, 이렇게 5개 정유사가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대로 계속 순탄한 항해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부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서라도 에너지의 질문제, 연비를 높이는 문제, 또는 보다 깨끗한 기름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동자부도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에 낙오되는 기업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오히려 소비자는 굉장히 좋은 기름을 쓸 권리가 있고, 그런데 왜 폴사인을 안하고 왜 주유소는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러는가, 물론 지금 김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이해관계가 걸리고, 이것 하나 할려면 여기에 대해 시비불고 시위하고, 그래서 못 하기도 하겠지만, 동자부가 에너지 전체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고충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기정 사실인 만큼 정유업계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준비를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 시장도 개방되서 그쪽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쪽 정유회사가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소홀히 하는 식의 영업방침이라는 것은 계속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자부 월간업무계획을 보니까 석유산업, 가격, 유통구조, 수출입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재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 중 이런 것들이 중점으로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李원장님께서 아까 투자기금



정유업계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은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아직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자책도 가져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신문사에 들어가면 공박을 당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령, 그런 문제를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외신면에 중동 오일달러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 나중에 조용한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會晟 : 네, 알겠습니다.

權五勝 : 저는 오늘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제기획원 출입을 하다가 동자부에 온지 한달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추기자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여론의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동자부 기자로서의 어떤 감각내지 그런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평범한 얘기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근간, 기본 그리고 우월성은 역시 자율과 경쟁인데, 제가 오늘 배우고 들은 것은 현재의 정부가 이런 강력한 규제와 업체의 어떤 비경제성을 갖고는 자주 유전개발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자주 유전개발을 위한 60억달러 정도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비록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험심을 가진 그러한 멘파워가 가령 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회의적인 표현으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추박사의 우국충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론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수안보로 오면서 본계, 極東精油의 입간판, 무슨 광고를 보면서 도대체 석유회사가 무엇하러 광고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湖油나 油公이나 極東이나 상표를 보고 아직까지 기름을 넣어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을 뿐이지 어떤 상표별로 기름을 넣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시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마케팅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론으로부터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정유사들이 받고 있는데 美國에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농약회사들이 엄청나게 여론의 화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회사들이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납니다.

美國의 넘버 투 농약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총대를 졌어요.

넘버 원은 가만있는데 넘버 투가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어차피 식량이 증산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는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더 증산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농약을 다 쓰지말고 결국 조금 나는 식량 그러니까 저 식량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두가지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그후 美閣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시민들로부터 농약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버 투가 넘버 원을 뒤집었네요.

그것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뒤집었는데 그보다 업계쪽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탁상수준에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權五倫 : 우리 모임이 시작된지 제가 알기로는 9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慶州에서 시작해 가지고 道高에 가고 계속 발전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토의 내용도 오늘 보니까 진지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매년 느끼는게 여기 오면서 좀 부끄럽게 느끼는게 있습니다.

그 전부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유업계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 얘기는 매년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아직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자책도 가져봅니다. 더군다나 그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계신분들은 저희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어느 기자분들하고 대화하면는 자기도 신문에 들어가면 밤낮 당한다, 이런 얘지요.

너는 뭐 정유회사편이나 해가지고 욕도 먹고, 또 자기 주장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다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이, 아까 張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메이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시각이 나빠졌었지요. 그게 불식이 아직도 안 되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전부 공개기업이고 국민의 기업입니다. 뭐 한 회사 湖南精油가 아직 합작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건 국가적인 목적으로도 정유회사 하나쯤은 합작으로 있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유업계가 사실 한 '80년초 그때까지만 해도 1차,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보냈어요. 여기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달아 '79년, '80년 해가지고 60% 유가 상승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유회사가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60% 훨씬 넘어야 되는데 60% 넘겨 인상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60% 미만으로 59. 몇 %로 기억되지만, 연달아서 두해에 걸쳐서 그렇게 인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석유국장도 그렇고, 그때 신현확 씨가 부총리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지탄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수용돼 있는 것을 보면 정유회사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후에 '82년도 인가 한번 5백 몇억 해가지고 한해는 불쑥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폭리를 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지요. 사실은 그전에 적자난 것들을 전부 뒤늦게 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정유업계는 너무 정정유착이니 뭐니 밤낮 지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고 나서 다행히도 원유가가 떨어져서 低油價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원유가가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잘 해가지고 계속 떨어져 물가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0년대 중반에 가면 원유값이 25달러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데 정부가 값싸게 한게 지금 보면 잘 하기는 했지만, 잘 하지 못한것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이 싸다 보니까 소비가 너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로가면서 소비가 더 둔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거란 말예요. 그리고 실제 에너지절감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썼는데 그게 작년 제작년에 한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절약 정책을 쓴 것은 주로 병커C油에서 절약을 한거지요. 그런데 병커C油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절약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병커C油도 이제는 자연 증가로해서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도 '80년부터 자율화 얘기는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자율화, 지금 자율화 안된 것은 여기 계신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정유업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업계가 규제를 당하면서 정정유착해서 정유업계를 봐주었다 이랬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가 너무 우리를 못살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아까도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9.7%란 말이 9.7%지, 실제로는 6~7% 이 정도밖에 이익도 못내고 있고 물론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하튼 지금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의 고유가시대를 가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스스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이제는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자율화에 대한, 만들어 놓고 그 자율화를 하면 어려운 점이 이리이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리이러한 점은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해소를 시켜가지고 해소되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서 자율화한다, 그렇게 되면 정유업체도, 그런 일종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형태로 되면 정유업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국제화경쟁체질을 갖추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은 저희의 나쁜 점은 저희가 고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홍보도 같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鄭善基 :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퀴즈성 질문점 하소연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極東에서 크래킹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다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활려고 하더라하는 이런 얘기하고도 일부에서는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투자라는 것은 우선 회사에서 할때는 수익성을 감안 하지요. 투자를 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감안해서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억 짜리를 투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한다면 말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이익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자본금을 기준으로해서 16.5% 이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자본금 π 의 크기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제로입니다. 대신에 거기 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는 정부가 현행 유가관리방식으로 이자는 유가 안에다가 원가 요인으로 반영을 해주니까 이자는 부담이 이론상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금 갚을 길이 없어요. 또 만약에 정부의 일반적인 투자 지침인 30%를 자본금으로 대고 70%를 차입에 의존을 한다고 그러면 30%에 대해서 10%의 세후 기준으로 세전 16.5%이고, 세후 10%라고 가정했을때 10%의 이익이 생기지요. 그러면 전체 투자금액 백억에 대해서는 30%면 30억이고 자본금이 30억에 대해서는 10%니까 3억이

생깁니다. 이 3억이 이익예요. 이 3억의 이익이 백억의 투자원금에 대해서 다 페이 아웃을 할려고 그러면 산술상으로 33.3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거나 못하는 사태가 나요. 이게 현재의 유가관리체제의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퀴즈삼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투자를 주저하느냐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긴 시간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在浩 : 여러분의 구체적인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참석을 보니까 의사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20명 가운데 1/3정도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의사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張실장님께서 세후 20%라는 것은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풀이해서 세후 20%가 나왔는가 봤더니 우리가 자기자본이 '88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6,440억인데 거기에 16.5%해서 계산해 보면 1,063억이 토털 우리가 향유해야 될 이익인데 거기다가 세금 제하고 그 다음에 법정준비금 제하고 거기다가 배당금 15% 제하고 나면 실지로 사내유보가 있어야 투자를 할텐데 결국 사내유보는 -9%로 가니까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세후 이익이 20% 수준은 되어야만 -9%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계산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20%라는 수준이 절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까 탈황 크래킹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極東을 일단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2단계 검토할 때는 정부의 환경시책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경질유하고 중질제품의 국내수급밸런스같은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2단계로 京仁하고 油公을 허가해줬고, 3단계로 湖南精油와 雙龍을 해준 것으로 했습니다. 단계적인 교통정리는 해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환경문제가 강화돼 버렸고, 또 수급문제 엄청난 수요의 괴리현상이 생기니까 이번

66

현재 정유업계의 이익개념은 제로섬 게임의 구조를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는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플러스 되면 내가 죽게 되어 있으니 생사를 걸고 시장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9

에 한꺼번에 허가를 해가지고 같이 짓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무슨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안 했다는가 그런 사실은 추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유회사나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탈황 크래킹이라는 것은 투자비가 80%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그러니까 80%가 증가된 투자비를 일단 조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성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어떤 혜택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池국장님 말씀이 제쳤습니다마는, 첨단산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투자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여신규제 완화도 되고, 그 다음에 로얄티에 대해서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혹시 또 새로 오신 기자 여러 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憲相 : 아까李기자님이 말씀중에 이전투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 1년여밖에 안 돼서 유가정책이나 이런데 대해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 놓으니 다른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에서 온 문제도 있고 물론 시장에서의 페어플레이를 한다든가 자유경쟁 체제라는 것은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상대가 플러스되면 그냥 플러스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배아파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상대가 플러스되면

내가 죽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생사를 걸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거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정유회사 5개회사가 오손도손 손발 맞추면 잘 될텐데 그것도 하나 못하는 멍청이들만 모였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도 유가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화합해서 되지 안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 중질유 분해시설이 오늘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도 하려고 약속도 하는 것 같고 또 첨단산업으로 지정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타부서를 설득을 하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수고 많은 것을 보고 極東은 정말 그동안에 굉장히 혼자서 악전고투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끼면서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張錫靖 : 그런데 유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건었을 때는 심할 때는 10%씩 건어 가지고 너무 많이 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日本 같은데는 물론 조세로 봐가지고는 조세부담률은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석유소비세, 그런데 현재 국내유가는 日本보다 우리가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진차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금을 안 건고 내벌려 두었으면 아까李紀勳 기자도 5조원하시는데 그 5조원이 누구한테 갔겠느냐, 소비자한테 갔느냐 정유사한테 갔느냐 유통단계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저축을 하는 것이 낫느냐 그런 판단과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기금을 떼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가가 낮다는 것, 그래서 하여튼 그런면과 또 아울러서 지금 보면 정유사의 이익이 합쳐가지고 6백억, 7백억 그러는데

투자는 지금 해야 되는데 1조 얼마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여러가지 생각해볼 점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이윤율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플로면에서 상당히 1년에 하여튼 이익이 나는 것이 6~7백억인데 1조 얼마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금동원에 대한 것도 신규로 투자하는 식으로 모빌라이즈해야 되느냐, 기존의 거기서도 일종의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봐 주시는데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정유산업의 첨단산업지정은 아직 고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노력해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자금 플로면에서는 저희도 기금이 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첨단산업으로 지정되어 물론 지금 금년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신규제가 풀렸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기업 자체로 보서는 여신규제가 풀린 것 같고, 토탈규제로 봐 가지고는 여신규제가 지금 안 풀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나가는 것이 예를들면 5천억이 대출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5천억에 대해서 개별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데 5천억에서 그것은 묶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대로 제로섬과 마찬가지로 한 기업이 많이 얻어가면 다른데는 못 얻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과거에 개인별로도 규제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것에는 아직까지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가 '90년도 초에 금년내에, 몇년간은 하여튼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李會晟 :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합리적인 홍보대책 수립과 관련돼서 알고싶은 건데,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석유산업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객관적인 조사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黃斗烈 :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갤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會晟 :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黃斗烈 : 결과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美國의 경우제일 가고 싶지 않은데 몇 가지를 들먹거

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검찰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병원 거기 주유소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美國 시민들은 이 자동차는 신발이나 매한가지거든요.

매일 들락거려야 되는 곳인데도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매일 뺏기기만 하지 얻는게 없어요. 자동차 굴러러니까 연료를 넣으러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매일 지갑 열어야 되고 뭐하나 얻어 오는게 없더라, 서비스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인식이 있는데, 美國 주유소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친절한테도 많고 여러가지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물론 열악한테도 있지요. 할렘가 같은데 가면 아주 심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주유소의 서비스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유사가 국민으로부터 정유사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찬스가 몇번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도해 주실때 연간 매출액이 얼마다, 이익이 얼마다, 또 석유 파동이 났다, 수급파동이 났다, 별로 아름답지 못할 때 한번 인식이 되고요, 기껏 좀 희망을 주는게 아까盧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탐사에 참여했다, 유전 이런 것 해가지고 앞으로 산유국의 희망이 있다, 이런때 좋지만 대개 나쁜게 보도가 되고 또 한가지는 주유소에 오너드라이브가 많이 생겨가지고 주유소가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해졌습니다. 주유소에 갔을 때 나쁜 서비스, 열악한 서비스가 인상에 남고, 그것은 油公이 됐든 어떤 정유사가 됐든 정유사의 인식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되고, 또 겨울철에 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추워서 한말씩 石油사러 갔는데 떨어진 데도 있고, 줄서야 되고 등등 또 양도 속여먹고, 또 부관점이라고해서 자동차 배달꾼들 시키면 웃입고 와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것 또 디젤 10드림 배달해 달라하면 드림이 찬건지 안 찬건지 하는 불신감, 이게 정유사의 일반적인 인식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종이 덩치는 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쉽게 호응을 얻기 힘든 업종을 하고 있는데 애로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李會晟 : 나이나 소득간에 어떤 인식도에서 차이는 없었습니까?

黃斗烈 : 대개 지식층일수록 비판적이예요. 정유업체로서는 이게 대단히 문제다 이겁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들 모임인데 가면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또 여기 계시는 정부의 어른도, 마침 동자부에 계시는 분은 우리 입장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EPB나 MCI나 이런데 가면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겁니다. 거기 계시는 고급공무원님들을 상대로 해보면 일반 대중 그룹보다 훨씬 인식이 나빠요. 정유사에 대한 인식이 그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黃鎬升: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黃이사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토의를 해서 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과 모형을 짚어볼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사회자로서 협회 부회장이 한 말씀만 첨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준계석유정책간담회가 어떻게 보면 가을에 있는 공개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맡고 계신분들과 직접 토의하고 때도 써보고 우리 업계 사정을 여러 언론인에게 되도록 솔직하게 보여드림으로써 3자간에 3각관계가 더욱 절묘해질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뭔가 正反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원정책실장님과 석유국장님이 표명하신 내용에는 상당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표되어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착착 실현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다만 그렇게 흘러가려면 저희 업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문제해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자면 정유 5형제의 우애와 페어플레이가 지속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잔디밭에서, 그린필드에서 우리가 함께 스윙하는 것처럼 또는 테니스장에서 라켓을 휘두르듯 이 실내 테이블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유사업의 허용마진율이 아까 자원정책실장님께서 33.7%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산업평균수치보다 적다, 이러므로 현실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유업체로서도 그 정도면 겨우 연명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스트림 쪽에도 정부에서 주도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세계화시장에서 아무쪼록 국제경쟁력에 뒤쳐지지 않는 종합석유기업으로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 관 보 □

◎동력자원부공고 제90-27호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기준개정

석유사업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

1990년 5월 14일
동력자원부장관

1. 용자기준

나. 용자조건중 일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

(2) 이자율

• 탐사사업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정상생산 최초년도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복리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거치기간 만료시에 원금에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